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성

김은일*

<차 례>

1. 서론
2.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서사구조
 - 1) 혼인 중심의 사건 전개
 - 2) 이상적 인물의 제시
 - 3) 권력과 재력 기반의 배경 설정
3.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생산과 유통
 - 1) 연작성을 지닌 창작 방식
 - 2) 여성 독자 중심의 향유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서사 문법상 몇 가지 유사성을 확인하여,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활용 및 대중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서사 내적인 부분과 서사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그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사건 진행의 측면에서 '혼인'을 중심에 두는 점이 유사함을 밝혔다. 고소설의 대부분이 '혼인'을 다루고 있으나 국문장편소설만큼 혼인을 그 중심 주지에 두고 다양한 서사를 복합적으로 전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 전개의 유사성은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다음으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완벽함을 갖춘 이상적 인물을 설정한다는 것이 유사하다. 재벌가 혹은 벌벌가를 주요한 배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시대적 차이에 따라 재벌가의 활용 양상은 다르지만, 배경으로 전경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서사 외적으로는 연작성을 지닌 창작 방식을 갖는다는 점, 여성 중심의 향유물이라는 점에서 유사성

* 충북대학교 조빙교수

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현대의 출판 환경은 ‘웹’을 기반으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웹소설은 OSMU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달리 말해,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것은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양상은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성은 국문장편소설의 웹소설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활용 및 대중화 전략의 단초를 로맨스 웹소설에서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국문장편소설, 로맨스 웹소설, 연작, 국문장편소설의 대중화, 웹소설

1. 서론

이 연구는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비교하여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론이다. 국문장편소설은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까지 고소설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장르이다. 특히, 국문장편소설은 긴 분량이 특징적이다. 방대한 분량 속에 복수 인물의 복수 서사를 전개하며 인간사의 면면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미시적으로 들여다본다. 유형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인물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유사한 듯 보이지만 차별적인 서사를 긴 호흡에 풀어낸다. 이런 까닭에 많은 연구자가 국문장편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취가 사라진 듯 보인다. 단절의 흔적 때문인지 현대 인들은 국문장편소설의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2020년 수확능력평가에서 <유씨삼대록>이, 2022년 6월 모의평가에서 <소현성록>이 나오면서, 이러한 작품이 있다는 정도를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에서 교육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혜경은 국문장편소설이 약 80종 정도로 고소설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국문장편소설 80종의 분량을 총합하였을 때 고소설 1,500종을 웃도는 지점을 지적¹⁾한 바 있다. 작품 수로는 몇 안 되지만 단편인 고소설을 모두 합한 총량보다 많은 분량이라는 점에서 국문장편소설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연구자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국문장편소설은 그 분량 때문에 오히려 사장된 듯하다. <춘향전>과 같은 단편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국문장편소설은 1960년대까지도 낙선재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 연구가 50년 이상 누적되었으며²⁾ 2010년대 이후에는 삼대륙계 소설의 현대어역 등을 통해 ‘국문장편소설’이 존재했음을 알리려는 노력도 축적되었다. 또한, 국문장편소설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게임이나 영상과 비교하는 연구 혹은 게임화나 영상화와 같이 콘텐츠화 시론에 대한 연구³⁾는 국문장편소설의 대중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중화할 가치를 인정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TV 드라마와 유사성⁴⁾을 점검하면서 대중화 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
- 1) 정혜경, 「서지 데이터로 본 국문장편소설」,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78~79쪽.
 - 2) 국문장편소설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선희, 「국문장편소설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 3) 김경희,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 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 대표 혼사담에 내재한 영상 문학적 요소의 시론적 고찰」, 『동방학』 1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 4) 서사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가 텔레비전일 때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비교논의가 진행되었다. 송성욱, 「고전소설과 TV드라마-TV드라마의 한국적 아이콘 창출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한, 현대적 활용과 출판 전략에 대해⁵⁾ 제언한 논의도 있다. 그밖에도 국문장편소설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⁶⁾가 많이 축적되었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활용의 필요성에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문장편소설의 대중화는 요원해 보인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중문화의 양상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중 서사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⁷⁾ 정리하자면 국문장편

-
- 5)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 6) 송성욱,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연계방안 사례 발표-조선시대 대하소설을 통한 시나리오 창작소재 및 시각자료 개발」,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신선희, 「고전서사문학과 게임 시나리오」,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75~106쪽; 조혜란, 「다매체 환경 속에서 고소설 연구 전략」,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양민정,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전소설의 활용 방안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05, 223~258쪽; 서유경,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전소설 교육설계」,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53~79쪽; 이명현, 「멀티미디어 시대의 고전소설 교육의 모색과 전환」, 『다문화콘텐츠연구』 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6, 15~28쪽; 조혜란, 「고전소설과 문화콘텐츠」,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91~114쪽; 신선희,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고전서사관련 교과목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0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133~158쪽; 이지하,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197~220쪽; 정창권,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85~108쪽; 이명현, 「문화콘텐츠시대 고전소설 연구 경향과 방향」,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정선희, 「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5~30쪽;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학회, 2018, 119~159쪽; 임혜리, 「고전 한문소설 〈삼한습유〉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정선희(2020), 앞의 논문, 27~28쪽; 김은일, 이은경, 「국문장편소설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구축 연구」, 『인문학연구』 32, 인문과학연구소, 2022.
- 7) 기존에는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국문장편소설과의 유사성을 점검하고 대중화 전략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웹을 기반으로 대중문화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므로 웹기반 서사물과의 비교도 필요한 시점이다.

소설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023년 현재의 주요 매체는 ‘웹’이다. ‘웹’을 이용한 서사물 중 ‘웹소설’은 디지털화에 성공한 서사물⁸⁾로 평가받고 있다. 웹소설은 서사 문학 중 ‘웹’이라는 매체에 적응하여 그 외연을 넓혔다. 웹소설은 말 그대로 “웹을 기반으로 한 소설”⁹⁾이라 할 수 있다. 기실, 웹소설은 ‘통속성’, ‘대중성’을 추구하는 장르로 순수문학의 대척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마이너’ 문학이라든가 저급문화로 분류하며 학술적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은 웹소설이 지닌 문화적 함의가 작지만은 않다는 것에 동의하며 학술적 정립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⁰⁾ 초기에는 웹소설의 ‘문화산업’적 측면에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웹소설의 내연에 대한

-
- 8) 김경애, 「로맨스 웹소설의 구조와 이념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66쪽; 류선희, 「로맨스 웹소설 속 가상 역사의 구현 방식 연구-웹소설 해시의 신루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류수연, 「웹 2.0시대와 웹소설-웹 로맨스 서사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9; 이희영, 「디지털 시대, 웹소설로 인문학 토크아보기-화산위협과 전지적 독자 시점을 읽고」, 『리터러시 연구』 14,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 9) 김준현, 『웹소설 작가의 일』, 한티재, 2019; 이지용, 「웹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학연구』 7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 10) 대학에서는 웹소설 관련 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웹소설 관련 논의도 제법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3년 네이버에서 ‘웹소설’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후, ‘웹소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나운빈이 2021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RISS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웹소설 연구는 총179건이다(「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웹소설 연구 동향-RISS논문과 NTIS 과제를 중심으로」, 『출판잡지 연구』 29, 2021). 그밖에도 오태영은 웹소설 키워드로 검색되는 학술논문이 261편을 대상으로 웹소설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도 했다(「웹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70, 2022). 실제로 2023년 10월, RISS에 ‘웹소설’을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해보면 웹소설과 관련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이 약 300건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웹소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로잡고 학술적 정의를 시도하여 웹소설의 가치를 파악한 논의도 있다(이지용(2022), 앞의 논문).

연구가 진행되면서 ‘문학’으로서의 웹소설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많아졌다.

웹소설을 둘러싼 대중들의 시각과 현대의 연구 흐름을 보면 ‘국문장편소설’을 둘러싼 인식이 오버랩된다. 웹소설을 특정한 문화 현상으로서 순수 문학과 구별하는 태도는 국문장편소설을 비롯한 고소설을 경전의 글과 구별하는 당대인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도 ‘국문장편소설’과 ‘웹소설’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이 유사성은 외연과 내연에서 모두 포착된다. 이에 보고는 국문장편소설과 웹소설을 비교하여 시간과 매체를 뛰어넘어 공유되는 문화적 코드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적 전통 서사의 흐름이 꽤 오래된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단, 보고에서는 ‘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¹⁾ 한혜원은 로맨스 웹소설이 웹소설의 주요한 하위장르임을 지적하면서 로맨스 웹소설의 서사가 “웹소설 전반의 기반을 구축하는 마스터 플롯”¹²⁾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만큼 웹소설에서 로맨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¹³⁾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로맨스 웹소설은 ‘사랑’의 성취로서의 ‘혼인’과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인 주제이다. 이는 국문장편소

11) 참고로 웹소설과 고소설을 비교한 연구는 특정작품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연구(최수현, 「고전소설 콘텐츠화의 한 사례 고찰-웹소설 <설공찬환혼전>의 고소설 <설공찬전> 변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가 있고, 장르적 특징을 비교한 것은 웹소설과 딱지본소설의 파라텍스트를 분석한 경우(정은혜, 「한국 로맨스 웹소설과 딱지본 소설의 파라텍스트에 나타난 공통점 분석」, 『인문콘텐츠』 50, 인문콘텐츠학회, 2018)가 있다. 웹소설과 고소설의 유사성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국문장편소설’까지도 떠올리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 한혜원, 「한국 웹소설의 매체 변환과 서사 구조」,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2017, 277쪽.

13) 김경애에 따르면 웹소설의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의 경우 2015년 로맨스의 비중이 64%에 달한다고 하였다(김경애(2015), 앞의 논문, 65쪽, 70~71쪽). 실제로 2023년 10월 22일 네이버 웹소설 메인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소설 통합 랭킹 15위를 보더라도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로 분류된 작품이 12개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로맨스 웹소설의 비중이 큰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설이 ‘혼인을 통한 가문의 안정과 번성’이라는 주제의식을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과 유사하다.¹⁴⁾ 따라서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을 주요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국문장편소설의 방대함만큼이나 로맨스 웹소설의 세계도 방대하다. 지나친 유행화는 각 작품의 개별성을 진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¹⁵⁾ 본 논의도 그 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웹소설이 연재되는 플랫폼도 많고, 그 플랫폼에 따라 작품의 그 성향도 천차만별이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르 간의 유사성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후속 논의가 가능하므로 거칠지만 두 장르의 유사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네이버 시리즈’¹⁷⁾와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작품 중 드라마로 제작된 바 있거나, 드라마 제작 작품과 관련이 있는 작품, 각 플랫폼에서 주력으로 광고하는 작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대중적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피아’나 ‘조아라’ 등 다른 플랫폼에서 인기를

14) <유효공선행록>과 같이 삼대륙계 소설의 전편이나 <보은기우록>과 같은 작품들은 오히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현대판타지 웹소설과 비교할만하다. 그러나 로맨스 웹소설이 마스터플롯이라는 관점에서 무협이든, 영웅소설이든 ‘사랑’이 빠진 서사는 없으므로 일단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각 작품별 유사성 비교는 다음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15) 개성 넘치는 로맨스 웹소설 작품들의 모든 특징을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웹소설 연구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논의를 찾기 어렵다.

16) 대표적인 플랫폼은 ‘네이버 시리즈/네이버 웹소설’, ‘카카오페이지’, ‘조아라’, ‘문피아’ 등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플랫폼 어플도 등장하였다. ‘조아라’와 ‘문피아’는 제법 오래된 플랫폼이고 마니아적이라면, ‘네이버 시리즈/네이버 웹소설’과 ‘카카오페이지’는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으로 웹소설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 있다. 김준현(2019), 앞의 책, 85~130쪽.

17) 네이버는 ‘네이버 웹소설’로 시작하여 ‘네이버 시리즈’라는 모바일 플랫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소설은 대부분 ‘네이버 시리즈’에서 접근 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네이버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얼은 작품들을 다시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플랫폼에 연재되었으며, 드라마로 제작된 바 있거나, 그와 관련된 작품 혹은 각 플랫폼에서 주력으로 광고하는 작품을 예로 들고자 한다.

2. 국문장편소설과 웹소설의 서사구조

복수 주인공의 복수 서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문장편소설의 형식적 특징이라면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국가의 문제, 더 나아가 천상의 문제까지 ‘혼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갈등을 서사화하는¹⁸⁾ 것은 국문장편소설의 내용적 특징이다. 2장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내용적 특징을 로맨스 웹소설과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외연을 둘러싼 맥락, 즉 유통과 향유층, 창작 방식 등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확인할 것이다.

1) 혼인 중심의 사건 전개

국문장편소설¹⁹⁾과 로맨스 웹소설은 ‘혼인’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한다. 로맨스 소설에서 ‘혼인’은 사랑의 결과로 표현된다. 로맨스 소설은 혼인(혹은 혼인 상태의 안정과 유지)이라는 결말을 향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18)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84쪽.

19) 국문장편소설은 가문소설로 불리기도 한다. 국문장편소설은 분량에 견인된, 즉 외적 형식을 중심으로 명명된 것이다. 가문소설은 주제와 관련하여 가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문의 창달과 번영으로 드러내는 주제로 귀결한다는 점에서 명명된 것이다. 가문소설은 1권짜리 작품도 있지만 대체로 장편이 많기 때문에 국문장편소설과 가문소설이라는 용어를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문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서사를 가문의 여러 구성원을 중심으로 펼쳐내는 작품들을 강조하며 국문장편소설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 이는 국문장편소설도 다르지 않다.

주지하듯 국문장편소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가문의 창달과 번영을 주제로 한다. 작품 대개의 서사는 집안 어른들이 자녀의 혼인을 약속하는 것에서 시작된다.²⁰⁾ 그러나 혼인을 약속했다고 하여 바로 혼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진양문록>의 경우 남녀주인공은 ‘정혼’을 했지만 실제로 ‘혼인’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나타난다. 하옥주와 진세백이 혼인을 하고 서사가 충분히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혼인 이후의 생활에서 갈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즉, 혼인이 성립되기까지의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혼인을 한 후에도 안정적인 혼인 상태를 만들기까지의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 있기도 하다.

로맨스 웹소설은 대체로 남녀가 만나 사랑을 성취한 후 혼인을 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김경애는 로맨스 웹소설을 “남녀주인공이 서로 형언할 수 없는 강한 사랑을 느끼고 온갖 장애를 뛰어넘어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²¹⁾로 정의했다. 로맨스 웹소설 중에도 ‘혼인’을 먼저 한 후, 여러 갈등을 겪은 후 혼인 생활이 위태로워져 ‘이혼’을 하거나 잠시간의 이별을 하지만 사랑을 깨닫고 다시 재결합하는 서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주인공들이 혼인을 통해 이룩하고 싶었던 것은 ‘가문의 안정’이며, ‘가문의 안정’의 이면에는 ‘가족애’가 담겨 있다. 강우규는 일일드라마와 국문장편소설이 “가족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은 바 있다.²²⁾ 로맨스 웹소설의 실상도 이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결실은

20) 국문장편소설의 전형적인 서사는 가계의 소개, 정혼, 혼사의 장애, 장애의 극복, 가문의 번성으로 진행된다.

21) 김경애(2015), 앞의 논문, 2015, 76~77쪽.

22) 강우규, 「일일드라마와 국문장편소설의 유형성과 문화적 위상 고찰-〈잘 키운 딸 하나〉와 〈성현공숙딸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017, 195쪽.

‘혼인’이나 ‘혼인 생활의 안정 찾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아울러 로맨스 웹소설은 결말 이후 ‘외전’의 형태로 에필로그를 붙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때 ‘외전’은 주로 남녀 주인공이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하며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표현한다. 남녀의 사랑이 ‘가족애’로 표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문장편소설 결말의 유형성이 ‘개개이 훌륭한 자손을 두어 가문이 번성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유형적 결말은 로맨스 웹소설의 ‘외전’과 유사하다. 로맨스 웹소설의 외전은 시대적 배경에 따른 서사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 대가족 중심의 ‘가문 서사’가 핵가족 중심의 ‘가정 서사’로 변형된 셈이다. 국문장편소설이든, 일일드라마이든, 로맨스 웹소설이든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혼인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형성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혼인’이 주요 주제라는 점에서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은 유사하다.²³⁾ 현대의 서사, 즉, 로맨스 웹소설과의 차이점이라면 ‘사랑’을 표면화하는지 아닌지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할 수 있다. 다만, 국문장편소설이 향유되던 그 시기에는 ‘사랑’을 현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문장편소설은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인물들의 목표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23)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서사가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춘향전>은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읽힌다. 물론 사람에 따라 ‘충효’와 ‘정절’을 강조하는 교훈서로 읽기도 했다. 사랑 이야기는 반드시 사랑만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 이야기는 인류 보편의 이야기로서 당대 사회의 현실과 당대인의 인식을 보여준다. 단순히 남녀가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결혼한 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당대의 복잡다단한 삶이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는 곧 인생 이야기가 되곤 한다. 이때, 국문장편소설은 이러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의 작품에 여러 편 모아놓은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은 고소설의 여러 하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거대 서사체이기 때문에, 현대 대중 콘텐츠로 거대 서사 세계를 보이는 <왕좌의 게임> 시리즈나 마블 시리즈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현되지 않을 뿐, ‘존중’이나 ‘이해’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상적 인물 제시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은 인물을 제시하고 그 인물이 서사를 견인하게 하는 방식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당대적 가치하에 가장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특히, 국문장편소설이나 로맨스 웹소설은 여주인공의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묘사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는 고소설 중 단편소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 분량을 늘리기 위해 인물의 외양이나 심리 묘사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로맨스 웹소설에서는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의 등장인물은 배우지 않아도 신이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총명하고 현명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 능력이 우월하다. 게다가 외모도 출중하여 당대의 미남, 미녀로 표현된다.

- ㉠ 정덕황제 쇼미 계시니 시년이 십이세라 농종옥골이 범인과 현격하고 추슈정신이 데왕의 귀미를 니어 석석 쇠락한 풍치 일월의 빗출 앓는디라…(중략)…공췌 혼갓 외외 특이홀 분 아니라 현성흔 덕되 하늘 궂고 신이흔 아람이 귀신 궂호여²⁴⁾
- ㉡ 윤의렬 덩숙닐의 일월명광과 추슈정신이며 팔치염광이 태양이 빗출 아스니 혼 번 보미 귀운이 상연호여 몸이 단세의 이시나 호호이 녁뵝이 월궁 향으를 봄 궂고²⁵⁾
- ㉢ 여자는 아찔한 스틸레토 힐을 즐겨 신었다. 허리를 쭉 펴서 걷는 자세 덕분에 더욱 늘씬해 보이기까지 했다. 10년 전, 미스 서울 선으로 선발되어 본선 무대까지 오른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특유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이

24) <유씨삼대록> 권1.

25) <명주보월빙> 권96.

그대로 서린 발걸음에 소곤거리며 돌아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²⁶⁾

예를 들어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는 주체적 인물이면서 당대의 가장 이상화된 여성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의 외모는 모두 뛰어나다. 이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술자는 외모에 대해 묘사한 후, 덕성과 능력을 칭송한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특징적인 까닭에 이에 관한 연구도 제법 진행된 바 있다.²⁷⁾ 〈명주보월빙〉의 경우 외모의 순위를 비교하여 여성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그중 여주인공이 가장 뛰어난 인물임을 강조한다. ㉡에서 윤의열과 정숙열은 각각 윤명아와 정혜주를 지칭하는 데 윤명아와 정혜주는 〈명주보월빙〉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꼽고 있다. 특히 윤명아는 〈명주보월빙〉 전체 서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명주보월빙〉의 갈등의 주체가 되는 신묘랑을 제거하여 윤·하·정 세 가문에 얽힌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인물로 표현된다.²⁸⁾

로맨스 웹소설에 나타나는 여주인공도 외모가 출중하며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었으며 인성이 훌륭한 인물로 표현된다. ㉢은 〈법대로 사랑하라〉²⁹⁾의 첫 페이지에서 여주인공을 묘사한 부분이다. 여주인공 김유리는 변호사로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남주인공에 역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모두 갖춘 인물로 표현한다는

26) 노승아, 〈법대로 사랑하라〉 1회, 네이버 시리즈.

27)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08~122쪽; 김은일,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125~132쪽.

28)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20~224쪽.

29) 〈법대로 사랑하라〉는 2022년 이승기, 이세영 주연의 드라마로 제작된 바 있다. 본래 노승아의 웹소설인데 드라마로 제작한 것이다. 네이버에 연재되었으며 조회 수는 77만 회이다. 2022년 9월 4일에 개정판을 웹소설로 업로드하여 그 전의 조회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점에서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을 갖춘’ 인물로 묘사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 ㉠ 세기 년이 십삼의 니르니 옥모화풍이 인세에 빠져나고 문당지혜 당금의 무쌍하니 스위 부모 인둥흐미 극흐더니 십스의 갑과 제일의 싸이니 공지 소년영풍의 계화를 숙이고 슈의를 넘어 텃등뽕개와 창부지인이 일노를 덩허 도라오니 굿보는 재 피히 되어 칭찬 왈 금일 장원의 표치풍광이 삼디의 찌러지미 업서 온둥흐 기상이 흡연이 선승상 궂다 흐더라³⁰⁾
- ㉡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른바 ‘외고 왕자’로 군림했던 정호였다...(중략)...그날 흰칠한 신랑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끈 탓에 민폐 하객에 등극한 이는 단연 김정호였다. 노래는 또 좀 잘하던가. 그가 축가로 부른 김동률의 노래에 여자들의 눈망울이 일제히 촉촉해졌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에 빠져든 여자들은 입을 헤에, 벌리고 정호를 보았다. 단체로 최면에 걸린 모습이었다...(중략)...한국대 법대 수석 입학, 재학 시절 사시 패스에, 최연소 연수원 입소, 게다가 그 혹독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할 때는 2년 합산 최고 성적을 받은 수석 수료생으로 대법원장 상을 받기도 했다.³¹⁾

㉠과 ㉡은 각각 남주인공의 인물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문장편소설에서 인물의 뛰어난 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길가의 사람들이 남주인공을 보고 칭찬하는 장면과, 로맨스 웹소설에서 남주인공을 바라보는 여자들의 시선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도 유사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³²⁾ 김에니는 할리퀸 로맨스와 PC통신의 로맨스, 로맨스 웹소설을 비교하면

30) <유씨삼대록> 1권.

31) 노승아, <법대로 사랑하라> 2화~4화.

32) 이러한 비교는 더욱 면밀히 개별 작품을 들어 진행해 보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장르간 유사성 점검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추후의 논의를 기약한다.

서 등장인물의 다양화와 여주인공이 서사의 견인의 주체로 떠오르게 된 상황을 지적하였다.³³⁾ 특히, 남주인공이 사건의 해결사의 역할에서 여주인공이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된 지점, 로맨스 웹소설은 할리퀸과 달리 남주인공이 결핍을 가진 인물로 변모했음을 지적하였다. 국문장편소설에는 할리퀸 로맨스보다 로맨스 웹소설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더 많이 보인다. 사건 초점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초기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남주인공이 서사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주인공들은 남주인공의 성취와 성공에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남주인공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내면은 여주인공의 서사가 주요하게 부각된다. 〈유효공선행록〉의 경우 계후 갈등을 극복하고 혼인하여 가문의 번성을 이루어낸 유연의 서사처럼 보이지만 유연과 정씨의 수난과 갈등 극복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결합³⁴⁾이 주요한 서사이기도 하다. 특히 정씨는 가문의 위기를 여성이 해결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후편인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는 가문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며 정신적 지주로 기능하기도 한다.³⁵⁾ 〈성현공숙렬기〉의 경우 계모의 구박을 극복하고 가문의 번성을 이룬 임희린의 서사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임희린의 아내인 주숙렬의 고난이 서사 전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숙렬은 남장을 하고 여성 영웅이 되어 국가의 문제까지 해결한다. 위기에 빠진 시택과 친정을 구하고, 남편인 임희린도 구한다. 이는 할리퀸 로맨스에서 보이는 수동적 여성상과는 다른 양상이다.³⁶⁾ 오히려 로맨스 웹소설에서 새롭게 변모한 양상이라는

33)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2, 돈암어문학회, 2022, 22~31쪽.

34) 혼인 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 때문에 결합이라고 표현하였다.

35)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김태영,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진양공주’의 서사적 기능과 의의」, 『고소설연구』 51, 한국고소설학회, 2021, 62~63쪽.

36) 김예니는 로맨스 웹소설에 나타나는 남성상과 여성상이 할리퀸 로맨스의 변형으로

주체적으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의 등장에 다름 아니다.

19세기로 갈수록 여성 중심의 서사는 더욱 표면화되고 성행한다. <양문충의록>의 경우 양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중심에는 여주인공이 놓인다. 갈등의 해소 및 사건의 수습은 모두 여성의 몫이며, 여성이 일방적으로 서사를 꾸리기도 한다.³⁷⁾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과 같은 작품은 여주인공의 주체성이 매우 강조되기도 한다. 특히 하옥주의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남장이 밝혀진 후 규방으로 돌아가 지 않고 황궁의 일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임치균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살리면서 여성으로 사회에서 일한다.”³⁸⁾는 점에서 하옥주 캐릭터의 차별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하옥주 캐릭터의 경우 ‘조선 시대의 커리어 우먼’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현재 로맨스 웹소설의 경향성인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여성 인물’³⁹⁾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로맨스 웹소설과 국문장편소설 모두 당대의 이상적 인물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그 인물을 묘사하는 양상에서도 유사한 지점이 포착된다. “현대의 웹소설은 기존에 수입되어 번역되었던 소위 하이틴 로맨스, 할리퀸 로맨스의 또 다른 재현이자 변형”이라는 시각을 탈피해 서사 전통의 맥락에서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더 정밀한 비교가 요구된다 하겠다.⁴⁰⁾

본 바 있다. 그는 할리퀸 로맨스 소설은 전형적인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며, 여성 주인공을 초점화하지만 실제 서사의 전개는 남성 주인공에 의해 전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담론이 변화하고 매체가 변화하면서 로맨스 웹소설에서는 보다 다양한 남녀 주인공이 나타난다고 보았다(김예니(2022), 앞의 논문, 15쪽).

37)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10, 186쪽.

38) 임치균, 「조선 여성이 꿈꾼 커리어 우먼」,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283쪽.

39) 김예니는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여성 인물이 최근 웹소설 로맨스 서사의 주요 클리셰로 변모한 양상이라 지적한 바 있다. 김예니(2022), 앞의 논문, 26쪽.

40) 본고는 시론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유사한 양상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권력과 재력 기반의 배경 설정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은 배경 설정의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보인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인물들이 움직이는 주요 무대는 ‘가문’이다. 특히 이 가문은 권력과 재력을 기반으로 한 ‘별열 가문’이다. 특히나 대대로 정통성이 유지되어온 집안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곽장양문록>의 ‘곽문’은 곽분양의 자손으로 재력과 권력을 모두 갖춘 집안이다. <유이양문록>에서 ‘유문’은 유잠이 14세에 벼슬길에 올라 권력과 재력을 축적한 집안이다. 한 왕 고구에 의해 가문이 몰락 위기에 처하지만 가문을 다시 일으킨 후 더욱 더 공고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 된다. 더불어 별열가였던 ‘이문’과 혼인을 통해 연대하면서 권력과 재력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진다.

이는 로맨스 웹소설의 남주인공의 집안이 대부분 재벌가로 표현되는 것과 유사하다. 간혹 남녀주인공의 집안이 모두 재벌가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벌가의 남주인공과 일반 여성의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얼핏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의 반복이며, <춘향전>과 더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진양문록>의 하옥주, <부장양문록>의 장벽계 등은 가문의 몰락을 겪는 인물로, 현대 로맨스 웹소설로 치자면 일반 여성에 대응한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 작품들의 비교를 통해 더욱 점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한편, 로맨스 웹소설에서 주요 갈등으로 나타나는 재벌가의 후계 갈등은 국문장편소설의 계후 갈등과 비교될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은 장자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는 유흥에 의해 온갖 고난을 겪는다. 유연의 아버지 유평경은 장자인 유연을 폄박하고 죽음으로 내몬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도움이 있고 유연은 위기를 극복하여 유평경이 개과천선하도록 한다. 로맨스 웹소설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남주인공 김정호도 집안

인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비교 연구는 추후에 별도의 논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의 후계 갈등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⁴¹⁾ 김정호는 태경그룹의 외손자로 본래 검사였으나, 외삼촌 이편웅과 아버지 김승운의 비리를 보고 검사를 그만둔다.⁴²⁾ 또한, 집안의 재산 싸움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편웅은 김정호의 모친과 이복남매인 까닭에 아버지인 이회장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후계 구도에서 밀려날 것이 걱정된 이편웅은 끊임없이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김정호를 경계하고, 여주인공 김유리를 제거하려고 한다.

가문의 위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사성이 드러난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악인이 가문을 위기에 빠뜨리는 서사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국문장편소설 연구자들은 이를 ‘장르관습’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런데 ‘장르관습’은 ‘클리셰’⁴³⁾와 같은 개념이다.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한 장르관습을 예로 들어보자. 남녀주인공의 혼인 혹은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자가 주인공 가문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내용이다. 다만 국문장편소설에서는 가문의 위기가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는 반면, 로맨스 웹소설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구도는 유사하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배경에서도 공유되는 지점이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다양한 작품 중에는 로맨스

41) 조금은 결에서 벗어난 예이지만, 국문장편소설 중 ‘후계 갈등’이 표면화된 작품의 경우 현대의 ‘먼치킨’형 웹소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이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나 먼치킨물과 국문장편소설 작품의 남주인공을 비교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42) 드라마에서는 도한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이편웅은 소설에서는 태경 병원 재단 이사장이었으나 드라마에서는 도한 건설 대표로 나온다.

43) 김준현은 상투적인 표현, 개념, 생각 등을 클리셰라고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 상대가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손자였다.”는 설정을 예로 들고 있다. 흔히 ‘출생의 비밀’과 같은 코드도 클리셰로 보기도 한다. 클리셰라는 용어는 일반 대중들도 익숙하게 쓰는 개념어인 반면, 장르관습은 주로 학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어라는 차이가 있다. 김준현(2010), 앞의 책, 169~171쪽.

웹소설의 다양한 작품과 비교할만한 작품도 많이 있다.

3.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생산과 유통

1) 연작성을 지닌 창작 방식

주지하듯 국문장편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분량’이다. 〈완월회맹연〉의 경우 단일작으로 180권에 달하며, 〈명주보월빙〉, 〈임화정연〉 등 100권을 넘는 작품도 다수 있다. 게다가 국문장편소설은 ‘연작’인 경우가 많다. 〈명주보월빙〉은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으로 이어지는 3부작 소설이다. 4부에 해당하는 〈금환재합연〉이라는 소설이 목록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존하지 않으니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삼대륙계 소설로 분류되는 〈유씨삼대륙〉, 〈임씨삼대륙〉, 〈조씨삼대륙〉 등도 각각 전편이 존재하는 연작형 국문장편소설이다. 앞서 언급한 〈완월회맹연〉은 단일작 180권이지만 서술자는 소설의 내용이 산만해질 때쯤 ‘석씨가록’이 있다든지 ‘정씨가록’이 있다든지 하여 파생작의 존재를 연상토록 한다. 이처럼 단일작조차도 ‘연작성’을 지니고 있기에 국문장편소설의 서사는 끝없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문장편소설의 특징은 현대의 대중 서사물 마블시리즈와도 유사하다. 마블은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파생하면서 ‘시리즈’를 만들었고 MCU(마블 유니버스)를 창조하기도 했다. 정혜경은 연작성을 토대로 한 확장 가능성을 ‘스토리월드’로 표현한 바 있다. 서사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⁴⁴⁾

〈명주보월빙〉은 정천홍, 윤명아 부부, 윤광천 정혜주 부부, 윤희천 하영주 부부, 하원광 윤현아 부부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윤하정삼문취

44) 정혜경(2020), 앞의 논문, 78~79쪽.

록)은 정천홍, 윤광천, 하원광의 자녀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이다. 그에 비해 <엄씨효문청행록>은 <명주보월빙>의 다음 세대이자, <윤하정삼문취록>과 같은 세대의 다른 인물들의 서사를 펼친다. <엄씨효문청행록>이 윤씨 집안을 중심으로 엄씨 집안의 서사를 잠깐 언급한다면, <엄씨효문청행록>은 엄씨 집안을 중심으로 윤씨 집안의 서사를 언급하면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가볍게 처리했던 ‘엄씨 집안’의 서사를 진행하는 작품이다.

<유이양문록>에는 당대 국문장편소설의 창작 방법과 독자들의 기대 지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나타난다. <유이양문록>은 <유씨삼대록>, <이현경전>과 상호텍스트성을 갖는 작품이다. <유씨삼대록>의 인물인 유우성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현경전>의 주인공 이현경의 후손인 ‘장빙염’과 ‘장계성’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설정하여 <유이양문록>의 후반부 서사를 진행한다. <유씨삼대록>은 <여와전>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유씨삼대록>의 주요 인물인 진양공주가 <여와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국문장편소설 독자들은 작품을 읽으며 그 작품과 연관된 다른 작품을 떠올리거나 찾아 읽는 등 일종의 ‘놀이의 場’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⁴⁵⁾ 이와 같이 기존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을 다른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작품을 쓰는 방식은 “독자들의 읽”을 전제로 하여 독자와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필자의 전략이자 상업적 의도라는 것⁴⁶⁾에 대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45) 김은일,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46) 강미선은 혈연을 중심으로 연작을 쓰는 기존 작품과 달리, 다른 가문으로 공간 설정을 변경한 <양문충의록>의 의의를 분석하면서 “대하소설이 상업화 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의 극단적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강미선(2010), 앞의 논문, 146쪽). 김은일 역시 <유이양문록>과 <이현경전> 등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소설들이 존재했던 19세기에서 <유이양문록>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다른 작품과 연결성을 부여한 것

웹소설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네이버 시리즈에 소개된 노승아의 <법대로 사랑하라>⁴⁷⁾는 <허니허니 웨딩>, <로맨틱 레시피>, <결혼은 밥이다>와 관련이 있다. <법대로 사랑하라>의 주인공 김유리와 김정호의 친구 최혁준, 이준원과 한새연이 각각 <허니허니 웨딩>, <로맨틱 레시피>의 주인공이며, <결혼은 밥이다>의 경우 김유리와 김정호의 딸인 김린과 이준원과 한새연의 아들인 이진우가 주인공이다.

카카오페이지에 소개된 류향의 <빛과 그림자>, <골든 타임>, <글로리>⁴⁸⁾는 삼대륙계 소설의 구성과 유사하다. <빛과 그림자>는 일라이와 에드나의 혼인과 성취를 <골든 타임>은 일라이와 에드나의 아들 ‘알렉스’의 사랑과 혼인, <글로리>는 일라이와 에드나의 딸 ‘엘리사’의 사랑과 혼인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한 강규원의 <응급! 사랑으로 치료하는 방법>, <응급 사랑에 대처하는 방법>도 상호텍스트성 작품이다.⁴⁹⁾

이는 앞서도 말했듯 <윤하정삼문취록>과 <엄씨효문청행록>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윤하정삼문취록>은 윤·하·정 세 가문 자손들의 혼사담이 결합된 작품으로 100여 쌍에 달하는 부부가 나온다.⁵⁰⁾ 그중 윤성린과 엄선혜, 윤창린과 엄월혜의 서사는 <엄씨효문청행록>에 다시 나타난

로 보았다(김은일(2016), 같은 논문, 198쪽).

47) <허니허니 웨딩>의 경우 네이버 웹툰으로 소개되고 오디오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조회 수는 1,337만 회로 2015년 9월1일부터 2017년 12월 4일까지 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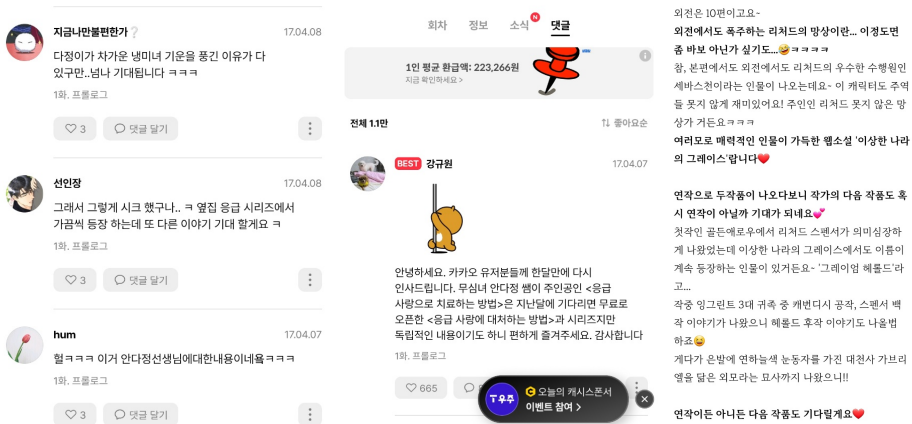
48) <빛과 그림자>는 카카오페이지에서 2014년 5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연재하였으며 조회수 2,190.6만 회, 별점 9.9점을 받은 작품으로 웹툰으로도 연재(2016.12.27.~2023.4.11.)되었으며, 웹툰의 경우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한 작품이다. <골든 타임>과 <골든글로리>를 합친 연재본은 조회수 674.4만 회를 기록했다.

49) 그밖에도 류향의 <리버플로>와 <저스트 투 오브 어스>, 달항아리의 <골든 애로우>와 <이상한 나라의 그레이스> 등의 연작이 있다. 로맨스 웹소설은 아니지만 현판 웹소설로 분류되는 이혜날의 <변호사 윤진한>, <검사 김서진>, <천재 의사 이무진>, <국회의원 이서윤> 등은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작품으로 시리즈로 묶일 수 있다.

50) 물론 100쌍의 혼사담이 모두 서사화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인물인 윤성린, 윤창린, 하몽성, 하몽린, 정운기, 정현기 등의 혼사담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다. <엄씨효문청행록>은 엄씨 가문 자손들의 혼사담과 엄씨 가문의 계후갈 등담이 혼합된 작품이다. 엄난혜와 화희경, 엄벽혜와 석세량의 혼사담, 윤성린과 엄선훈, 윤창린과 엄월혜의 혼사담, 엄창과 최씨의 계후갈등담, 엄백경의 후계 자리를 둘러싼 윤창린의 영웅담 등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씨삼대록>과 <양문충의록>에서도 나타난다. <조씨삼대록>은 <현몽쌍룡기>의 두 주인공 조무와 조성의 서사를, <조씨삼대록>은 그 자손들의 서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양문충의록>은 <조씨삼대록>의 등장인물 조월염과 양인광의 자손들의 서사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웹소설의 독자들도 국문장편소설의 독자처럼 연작 혹은 ‘시리즈’로 불리는 작품에서 놀이의 장을 형성한다.



㉠ <독자들의 반응>

㉡ <작가의 말>

㉢ <독자의 블로그 글>

㉠은 강규원의 <응급 사랑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댓글이다. ㉡ 작가의 말에서 작가가 시리즈임을 밝힌 바와 같이 <응급 사랑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작품에 등장했던 ‘안다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이다. 전편을 읽은 독자들은 친근감을 느끼며 작품에 더 쉽게 몰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도 작가의 말을 통해 ‘시리즈’임을 강조한다. 이는 시리즈끼리의 연작성을 강조하여 독자를 견인하는 효과를 누린다. ㉔은 또 다른 시리즈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캡처한 것이다. 달항아리 작가의 <골든애로우>와 <이상한 나라의 그레이스>의 연작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품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까만밤노란별(won3****) :
 법대로 사랑하라 때문에 웹소설에 빠지게 되었는데..신작이 나왔네요..이번에도 완전기대^^
 2015-09-01 13:30
 답글 1 1

㉔ <허니허니 웨딩 독자 반응>

얼렁뚱땅루루(icem****) :
 결혼은 밥이다 진우 부모님 이야기라서 더 흥미진진~♡♡
 2020-10-06 12:18
 답글 2 0

얼렁뚱땅루루(icem****) :
 결밥 시리즈 완전 중음 성우 이야기도 궁금... 결밥을 읽은 독자만이 아는 이야기~~ ㄹ
 2020-10-06 09:03
 답글 2 0

다래(bspe****) :
 작업대 위 저고리 만물다말다 졸독 잘 하고 이제 유리와 정호의 ♡♡ 졸독하러 날아갑니다.
 2020-06-05 10:51
 답글 2 0

㉕ <로맨틱 레시피 독자 반응>

㉔과 ㉕은 노승아의 연작에 대한 반응이다. 이는 노승아의 또다른 작품 <법대로 사랑하라>와 연작 관계에 있는 작품이라 댓글에 <법대로 사랑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진우 부모님은 <법대로 사랑하라>의 주인공 김정호와 김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는 독자들은 전작을 회상하면서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결밥을 읽은 독자만이 아는 이야기”라는

표현은 독자들이 놀이의 場을 형성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다만, 현대의 웹소설은 남녀주인공 한 쌍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면 국문장편소설은 복수의 남녀주인공 여러 쌍의 서사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씨삼대록〉은 유세형과 진양공주, 유설영과 양계현, 유세창과 남씨, 유옥영과 사강 등 여러 자손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유이양문록〉은 유필염과 이연기, 이몽혜와 장계성 등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명주보월빙〉의 경우 정천홍과 윤명아, 윤광천과 정혜주, 윤희천과 하영주, 하원광과 윤현아의 서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성현공숙렬기〉의 경우 복수의 남녀주인공 서사가 나타나듯 보이나 실제로는 임희린과 주숙렬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 후편인 〈임씨삼대록〉에서 임희린과 주숙렬 자손의 서사를 병렬적이고 복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골든 타임〉과 〈글로리〉를 합본하여 〈골든 글로리〉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의 전략을 보면 〈임씨삼대록〉과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국문장편소설이 연작으로 창작되며 서사를 확장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맨스 웹소설에서도 연작을 이용해 서사를 확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국문장편소설은 혈연과 인척을 중심으로 서사를 확장한다면, 로맨스 웹소설은 ‘친구’나 ‘동료’⁵¹⁾와 같이 서사에서 등장했던 매력적인 조연을 다른 작품의 주연으로 서사를 확장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매체와 변화의 시대적 간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작으로의 확장은 독자들이 놀이의 場을 형성하고, 소설을 읽게 하려는 전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51) 강규원의 ‘응급’ 시리즈는 병원 동료 의사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

2) 여성 독자 중심의 향유

로맨스 웹소설과 국문장편소설은 주로 여성 독자의 향유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로맨스 웹소설은 주로 여성 독자가 소비하는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⁵²⁾ 한편 국문장편소설 역시 여성 독자, 즉, 여성 향유층과 떼어내기 어려운 장르이다.⁵³⁾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⁵⁴⁾ ‘마니아’ 소설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로맨스 웹소설이 30~40대의 여성층이 주로 소비한다는 견해는 국문장편소설이 대체로 혼인한 사대부가의 여성들이나 궁녀들처럼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계층이 주요 독자라는 지점과 견줄만하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52) 김경애는 웹소설 독자는 여성이 95%에 달하며, 30~40대가 64%를 차지하는 문화적 집단이라 정의한 바 있다(김경애, 「한국 웹소설 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김경애(2015), 앞의 논문, 72~73쪽).

53) 홍희복의 『第一奇諺』 서문의 노모와 아내, 며느리, 딸 등이 독서를 했다는 기록, 이혜조의 「화의 혈」을 언문소설을 여성들이 많이 읽는다는 기록, 『한중록』의 기록,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가 <곽장양문목>을 다른 궁녀들과 필사했다는 기록 등 국문장편소설의 주요 향유자로서의 여성을 증명한다. 또한, 옥소 권섭의 어머니 용인 이씨가 <소현성록>을 필사했다는 기록, <완월회맹연>의 작가 전주 이씨와 그 주변에 대한 기록 등에서도 여성 향유층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54)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정창권, 「국문 장편소설과 여성」, 『한국학연구』 1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2; 박소현, 「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 독자」, 『중국문학』 53, 한국중국어문학학회, 2007;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정선희,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삶」,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탁원정,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지식, 여성지식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엄태식, 「한국 고전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웃소매 붉은 끝동에 달린 댓글〉

강미강의 〈웃소매 붉은 끝동〉에 달린 댓글인데 독자는 “그 시대의 문피아,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등은 궁”이었을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온라인 웹소설이 연재되는 플랫폼과 국문장편소설이 향유되는 궁이라는 공간을 동일시한 것이다.

로맨스 웹소설과 국문장편소설의 유통 형태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은 짧게는 2권, 길게는 100권 이상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반면 로맨스 웹소설은 ‘스낵컬처’의 대표주자이다. 그러나 로맨스 웹소설이 짧다는 것은 착각이다. ‘한 회’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스낵컬처’로 향유될 뿐이다. 실제, 네이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재혼황후〉⁵⁵⁾의 경우 총 337화에 달하는 분량이다.

로맨스 웹소설은 아니지만, 자카예프의 〈이것이 법이다〉는 2015년 11월 6일에 연재를 시작하여 2023년 10월 21일 4,300회까지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직도 연재 중이다. 웹소설 1회에 5,000자 정도의 분량이 기준이라고 한다.⁵⁶⁾ 회당 100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독자들은 5,000자보

55) 〈재혼황후〉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되었으며 2018년 11월 2일에 연재를 시작하여 2023년 1월 24일에 완결되었다.

다 짧으면 분량이 적다고 여겨 이탈하고, 5,000자보다 훨씬 많은 분량은 길다고 여겨 이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이다〉의 경우 현재 약 2,150만 자 분량의 소설인 셈이다. 이러한 셈법으로 〈재혼황후〉의 분량을 어렵해 보면 약 169만 자 정도가 된다. 박경리의 『토지』는 약 624만 자로 추정된다.

〈명주보월빙〉 100권을 당대의 언어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입력하면 약 215만 자이다. 이를 다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현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 양이 2배 정도로 늘어난다.⁵⁷⁾

- ㉠ 〈명주보월빙 원문 입력본〉 공의 위인이 겸공조인하고 통회 과인하며 문당은 니두궤고 슈신제가의 금옥궤호니 난니친척과 일시소유의 경양호는 비러라(64자)
- ㉡ 〈명주보월빙 1:1 현대어 번역본〉 공의 사람됨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자애롭고 인자하고, 충성과 효성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었다. 글을 씀에, 이태백과 두보와 같았으며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금옥처럼 귀하었으니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 그 당시의 선비와 유생들이 공경하여 우러러보는 바였다.(158자)

그렇다면 〈명주보월빙〉을 현대어로 충실히 번역한다고 했을 때 100권의 분량이 약 430만~500만 자에 다다를 것이다. 이를 웹소설처럼 편집하여 연재한다면 약 860회 정도의 분량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문장편소설의 중복되는 표현 등을 걷어내고 웹소설과 같은 형식으로 각색도 한다면 그 절반으로 분량이 줄 수도 있다. 게다가 〈명주보월빙〉은 주요 인물 네 쌍의 서사가 결합된 것이므로 한 쌍의 서사에 집중하여 웹소설처럼 편집한

56) 김준현(2019), 앞의 책, 44~45쪽.

57) 물론 현대어역의 양상에 따라 다르다. 모든 한자어를 다 가급적 고유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할 경우 2배에서 2.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면 한 쌍의 서사는 215회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거칠게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 수치로 환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대조를 통해 웹소설이 그다지 짧은 서사라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문장편소설의 ‘분량’이 웹소설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실, 국문장편소설도 ‘장회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하회를 분석하라.”와 같은 표현은 국문장편소설이 ‘회’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긴 분량을 ‘회’의 형식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충분히 국문장편소설도 웹소설의 틀로 연재가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활용 및 대중화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국문장편소설의 로맨스 웹소설화(化)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서사 내적인 부분과 서사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그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사건 진행의 측면에서 ‘혼인’을 중심에 둔 점이 유사함을 밝혔다. 또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완벽함을 갖춘 이상적 인물을 설정한다는 것이 유사하다. 재벌가의 활용 양상은 다르지만 재벌가가 주요한 배경으로 설정된다는 점도 유사하다. 서사 외적으로는 연작성을 지닌 창작 방식을 갖는다는 점, 여성이라는 마니아층의 향유물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로맨스 웹소설 연구자들은 2000년대 PC를 이용한 인터넷 소설에서 로맨스 웹소설의 근원을 찾거나, 1980년대 할리퀸 로맨스 소설에서 그 근원

을 찾는다.⁵⁸⁾ 멀게는 딱지본 고소설에서 그 근원을 찾기도 하면서 매체는 달라졌으나 서사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상황과 매체의 변화에 맞추어 변형하면서 성장해왔다⁵⁹⁾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서사적 전통은 국문장편소설에서 더 찾기 쉽다.

‘웹소설’은 OSMU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웹소설은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다른 매체로 전환되는 기초 콘텐츠로 기능한다. 최근 방영 중인 〈내 남편과 결혼해줘〉⁶⁰⁾ 등 웹소설 기반의 웹툰과 드라마가 계속 등장한다는 점에서 웹소설이 OSMU로 기능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게임의 서사가 웹소설⁶¹⁾을 기반으로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의 대중화 전략을 로맨스 웹소설화에서 찾는다면, 웹툰이나 드라마 등 제2차 저작물로의 확장도 수월해질 것이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문장편소설은 로맨스 웹소설과 서사 내·외연의 유사성이 높은 편이다. 이는 국문장편소설이 로맨스 웹소설로 각색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TV 드라마와의 비교를 통해 국문장편소설이 드라마와 유사함을 밝힌 논의는 있으나 실제로 드라마화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문장편소설을 읽고 드라마 대본을 쓸 ‘중간 매개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매개자는 ‘현대어역’이 담당하고 있으나 ‘현대어역’ 국문장편소설도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수월하지 않다. 이에 대중화를 위한 전략으로 현대 출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기도 했다.⁶²⁾ 주지하듯 현대 출판 환경은 ‘웹’을

58) 김경애(2015), 앞의 논문, 65~66쪽; 오태영(2022), 앞의 논문, 18쪽; 김예니(2022), 앞의 논문, 8~9쪽; 서희원, 「웹소설의 발생-모바일 디바이스, 다독, 정신 분산으로서의 예술」, 『인문과학연구논총』 4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66~68쪽.

59) 정은혜(2018), 앞의 논문.

60)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한 성소작의 웹소설로, 네이버 시리즈에 웹툰으로도 연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tvN에서 드라마로도 방영하였다.

61) 남희성의 〈달빛조각사〉는 인터넷 연재소설에서 웹소설의 형태로 재연재되기 시작했고, 웹툰에 이어 게임까지 등장했다.

62) 정혜경(2022), 앞의 논문, 146~152쪽.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성을 가장 기초적인 전제로 두고 국문장편소설의 대중화 전략을 짤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국문장편소설의 대중화는 국문장편소설을 둘러싼 일반론적인 현황에 대한 의미는 아니다. 국문장편소설이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현대 콘텐츠의 생산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문장편소설 작품 각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웹소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완월회맹연〉을 현대인들이 더 알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완월회맹연〉이라는 제목의 웹소설로 재편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후속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소녀, 홍길동〉의 경우 고소설 〈홍길동전〉의 서사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작품은 아니지만, 〈홍길동전〉을 모티브(motive)로 변형한 작품이다. 다만 이는 〈홍길동전〉이 널리 알려진 텍스트이므로 홍길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펼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각각의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국문장편소설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정도라도 웹소설로 제공한다면 종이책보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웹소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두 장르 간의 유사한 지점을 포착하여 비교한 논의인 까닭에 다소 포괄적으로 서술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는 모두 후속 논의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10, 35~67쪽.
- 강우규, 「일일드라마와 국문장편소설의 유형성과 문화적 위상 고찰-〈잘 키운 딸 하나〉와 〈성현공숙열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74, 국제어문학회, 2017, 187~208쪽.
- 구본기, 송성욱,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연계방안 사례 발표-조선시대 대하소설을 통한 시나리오 창작소재 및 시각자료 개발」,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53~75쪽.
- 김경애, 「로맨스 웹소설의 구조와 이념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63~94쪽.
- _____, 「한국 웹소설 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1, 551~558쪽.
- 김경희,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 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58쪽.
-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2, 돈암어문학회, 2022, 7~35쪽.
- 김은일,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111~143쪽.
- _____,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01~228쪽.
- _____,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73~202쪽.
- _____, 「양문록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삶」,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217~239쪽.
- _____, 이은경, 「국문장편소설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구축 연구」, 『인문학연구』 32, 인문과학연구소, 2022, 191~226쪽.
- 김준현, 『웹소설 작가의 일』, 한티재, 2019, 1~319쪽.
- 김태영,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진양공주’의 서사적 기능과 의의」, 『고소설연구』 51, 한국고소설학회, 2021, 39~70쪽.
- 나윤빈,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웹소설 연구 동향-RISS논문과 NTIS 과제를 중심으로」, 『출판잡지연구』 29, 출판문화학회, 2021, 45~62쪽.

- 류선희, 「로맨스 웹소설 속 가상 역사의 구현 방식 연구-웹소설 해시의 신루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225~240쪽.
- 류수연, 「웹 2.0시대와 웹소설-웹 로맨스 서사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9, 9~43쪽.
- 박소현, 「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 독자」, 『중국문학』 53,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115~143쪽.
- 서유경,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전소설 교육설계」,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53~79쪽.
- 서희원, 「웹소설의 발생-모바일 디바이스, 다독, 정신 분산으로서의 예술」, 『인문과학연구논총』 4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65~93쪽.
- 송성욱, 「고전소설과 TV드라마-TV드라마의 한국적 아이콘 창출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91~108쪽.
- _____,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쪽.
- 신선희, 「고전서사문학과 게임 시나리오」,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75~106쪽.
- _____,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고전서사관련 교과목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0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133~158쪽.
- 양민정,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전소설의 활용 방안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05, 231~264쪽.
- 엄태식, 「한국 고전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49~77쪽.
- 오태영, 「웹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70, 2022, 11~45쪽.
- 이명현, 「멀티미디어 시대의 고전소설 교육의 모색과 전환」, 『다문화콘텐츠연구』 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6, 15~28쪽.
- _____, 「문화콘텐츠시대 고전소설 연구 경향과 방향」, 『어문론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55~80쪽.
- 이지용, 「웹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학연구』 7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47~72쪽.
-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31, 한국고

- 소설학회, 2011, 111~144쪽.
- _____,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197~220쪽.
- 이희영, 「디지털 시대, 웹소설로 인문학 톺아보기-화산귀환과 전지적 독자 시점을 읽고」, 『리터러시 연구』 14,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653~668쪽.
- 임치균, 「조선 여성이 꿈꾼 커리어 우먼」,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276~291쪽.
- 임혜리, 「고전 한문소설 〈삼한습유〉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86~88쪽.
-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221~246쪽.
- 정선희, 「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5~30쪽.
- _____, 「국문장편소설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5~58쪽.
- _____,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173~212쪽.
-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 대표 혼사담에 내재한 영상 문학적 요소의 시론적 고찰」, 『동방학』 1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345~374쪽.
- 정은혜, 「한국 로맨스 웹소설과 딱지본 소설의 파라텍스트에 나타난 공통점 분석」, 『인문콘텐츠』 50, 인문콘텐츠학회, 2018, 247~267쪽.
- 정창권, 「국문 장편소설과 여성」, 『한국학연구』 1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2, 193~213쪽.
- _____,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85~108쪽.
- _____,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43~68쪽.
-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23~161쪽.
- _____, 「서지 데이터로 본 국문 장편소설」,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59~110쪽.
-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

- 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91~129쪽.
- _____, 「고전소설과 문화콘텐츠」,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91~114쪽.
- _____, 「다매체 환경 속에서 고소설 연구 전략」,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29~52쪽.
- 최수현, 「고전소설 콘텐츠화의 한 사례 고찰-웹소설 <설공찬환혼전>의 고소설 <설공찬전> 변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155~178쪽.
- 탁원정,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지식, 여성지식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111~145쪽.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8, 169~202쪽.
- 한혜원, 「한국 웹소설의 매체 변환과 서사 구조」,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2017, 263~291쪽.

ABSTRACT

A Study on Similarities of Korean Full-length Novels and
Romance Web Novels

Kim, Eun-il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certain similarities in the narrative structure between Korean Full-length novels and romance web novels, with the purpose of proposing a methodology for the modern uti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Korean full-length novels. To achieve this, the narrative elements of Korean Full-length novels and romance web novels wer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for examination of their similarities.

Firstly, it was highlighted that both genres share a similarity in focusing on the theme of 'marriage' in the progression of events. While a significant portion of classical novels deals with 'marriage,' it is challenging to find cases in Korean short novels where 'marriage' is placed at the center, driving diverse and complex narratives. Therefore, the similarity in narrative development centered around 'marriage' is considered a crucial measure.

Additionally, setting up an idealized character with perfection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is a commonality between the two genres. Particularly, the detailed portrayal of the character's internal and external facets shows a high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two types. The use of Jaebeol or wealthy families as a major background is another shared aspect. Although the utilization of chaebol in Korean short novels may differ from setting wealthy families in romance web novels, the commonality lies in the foregrounding of these backgrounds.

Externally, the research found similarity in the use of a serialized creative approach and the appeal to a female audience as a niche consumer group. Korean short novels are characterized by their serialized

nature, while romance web novels also feature 'series' In conclusion, Korean short novels exhibit a high degree of similarity in narrative structur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with romance web novels. Consequently, it is confirmed that the narrative grammar of romance web novels can be utilized as a strategy for the modern uti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Korean full-length novels.

Key Words Korean full-length novels, Romance web novels, Serial novels,
Popularization of Korean full-length novels, web novels

논문투고일: 2024.01.14. 심사완료일: 2024.02.03. 게재확정일: 2024.02.07.
--